

신

년

사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친애하는 전국의 농어민여러분!

농수산공직자와 유관단체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안정과 성장의 굳건한 터전위에서 선진조국창조의 의지를 더욱 불태울 갑자년의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인은 먼저, 새해 1984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보람과 행운이 넘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지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기어코 우리의 힘으로 주곡자급달성이라는 우리의 숙원을 앞당겨 성취했으며, 또한 81년 이래 연 3년동안 모든 농수산물을 풍작으로 이끄는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수산업은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성장을 크게 뒷받침하면서 농어가소득증대는 물론 가격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크나큰 성과를 남겼다고 여러분과 함께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농수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1,000만 농어민에 대한 깊은 배려와 우리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과학영농과 과학영어(科学營漁)를 실천하고 땀과 정성을 쏟아 열심히 일한 결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한햇동안 논두렁과 들판, 그리고 바다에서 우리 농수산업발전에 헌신적으로 애써오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뜨거운 치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전국의 농어민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공직자여러분!

1984년 새해는 우리의 국운이 세계속으로 더욱 힘차게 웅비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제 5공화국 출범이후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그때마다 이를 도리어 분발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이제 정치적, 사회적 안정속에서 세계가 한국의 발전을 부러움으로 주시하는 가운데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계적인 불황속에서도 9%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구시대의 유산인 물가오름세 심리를 추방하고, 40년래 처음 제자리 물가안정의 확고한 기반을 닦아 우리의 튼튼한 경제체질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같이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하곡과 추곡의 수매가격을 올리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어민을 외면하지 않고 농어

촌이 우리 민족의 뿌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매가격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과 공무원 봉급의 동결, 근로자의 임금인상억제 등 우리 모두가 도시와 농어촌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안정화 시책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전국의 농어민여러분!

우리 농어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는 농어민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에서 『농수산업이야말로 국력신장의 원동력이며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바탕으로서 힘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깊은 뜻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건국이후 처음으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동결예산의 편성을 단행하면서도 농수산업분야의 투자를 늘린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난해보다 더 좋은 풍작농사를 거두어 우리 농정사상 가장 알차고 가장 보람있는 한해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발전농정구현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의 농어민여러분!

선진조국창조의 기반이 더욱 굳게 다져질

1984년 새해에는,

첫째, 전체식량의 지속적 증산

둘째,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확대

세째, 소득증대를 통한 복지농어촌건설의 기반구축

네째,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의 획기적인 확대

다섯째, 농수산물의 유통정비 본격추진

이 다섯가지를 중점추진하고자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쌀·보리등 주곡의 자급을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기필코 달성하며 아울러 사료곡물의 증산으로 전체 식량자급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쌀농사는 작년의 영농경험을 살려 가장 큰 증수요인이 되는 지력증진에 최대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농한기인 지금부터 소형관정파기·논물가두기 등 용수원확보, 적지적품종 재배와 조해·수해·냉해·병충해 등 각종재해의 사전방지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새해에는 경지이용율의 극대화 주곡이외의 사료곡물증산과 초지조성에 더욱 주력함으로써 최근 불안정한 국제사료곡물추세에 대처함과 동시에 국제수지개선에 농정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식량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해 영농자금규모를 작년보다 500억원 늘린 5,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여자금도 300억원이 많은 2,500억원으로 늘려 풍년농사와 과학영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기 이전인 3월까지 2,000억원의 영농자금을 앞당겨 방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득증대를 위해 겨울철 생산계획과 푸른논 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펼치는 벧짚깎기·객토·토양개량제시용·깊이갈이·땅심돋우기와 노는 땅에 호맥·이태리언라이그라스등 사료작물 심기운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농

업과 수산의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예산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작년보다 191억원이 많은 3,22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 그리 영농의 기계화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수산물의 식량화 추세에 따라 수산분야에도 작년보다 83억원이 많은 667억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의 목장화 등 축양사업을 실시, 농어민여러분의 소득증대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경지는 이를 갈고 가꾸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농지전용억제·야산개발·간척 등 농지의 외연적 확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세째는, 소득증대를 통한 복지농어촌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지농어촌건설은 농어가의 꾸준한 소득증대와 더불어 농어촌에서의 생활이 도시 못지 않게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 이미 시범사업을 통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던 복합영농을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함과 동시에 수산분야에도 복합영농사업을 시범적으로 새로 착수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복합영농·영어단지에 대해서는 자금과 기술의 지원은 물론 작목선택에 있어서도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국내자금이 아직은 어려운 참깨·땅콩·유채·맥주보리·축산·낙농·잡업·축양증식 등에 대한 계속적인 생산과 유통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수산물의 수입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효과를 아울러 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된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따라 각 부처가 협조하여 농어촌 지역특성에 알맞는 부업 및 관광단지의 조성·농촌형공장 유치 등으로 농수산업이외의 소득을 높여 나가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도로포장·상하수도 확충과 문화·교육시설 개선 등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미 약속한대로 오는 86년까지 목표로 한 80년 불변가격으로 전국농어가 호당 평균소득 550만원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네째, 그동안 우리 농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업화·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흡수된 농어촌의 인력보강과 함께 과학영농·과학영어를 파급시키는 기수로 육성, 우리의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체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애농정착정신과 신념에 불타는 새마을 청소년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오는 87년까지는 전국마을당 한사람씩 모두 38,000명의 후계자를 둔다는 목표아래 새해에는 지난 3년동안 이미 선정된 수준의 새로운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농수산물유통구조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연계시켜 보다 근대화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이미 설치 시범운영되고 있는 유통전산화시책을 실용화하여 농업관측강화에 의한 계획생산체제를 굳힘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여러분과 소비자사이에 신속한 정보교환이 되게 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900억원의 자금을 들여 여러분의 산지공동출하단지를 확대지원·육성하고 서울 가락동 농축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의 완공을 비롯 지방대도시의 공영도매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건설하여 직거래를 늘려나감으로써 유통 단계를 줄이고 그 이윤을 농어민여러분께 되돌아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농어민여러분의 단체인 농협·축협·수협이 각단체 특성에 맞는 유통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 여러분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아갈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농어민여러분!

농수산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의 풍작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동안만 더 계속해서 풍년농사를 이룬다면 우리의 국민총생산은 1,000억달러, 국민 1인당소득은 2,500달러를 돌파하게 되어 우리나라도 대망의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될 때, 농어촌의 소득도 크게 높아져 우리의 농어촌이 도시보다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고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보람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새해에도 우리의 농정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더

욱 열심히 그리고 더욱 많은 땀을 흘려 꼭 풍년을 이룩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설계하며 주어진 시련과 역경을 굳센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찬 수확의 보람을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오랜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정시책을 크게 빛내온 전국의 증산왕·우수농어민후계자·고소득농어가·복합영농 및 공동출하의 모범단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그들의 성공사례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광이 풀고루 있으시기를 마음모아 빕니다.

끝으로, 우리 7만 8천 농수산공직자는 항상 농어민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들판과 바다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4년 元旦

농수산부장관 朴 鍾 汶

질서와 화합으로 선진조국 창조하자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